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이 치솟던 광주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가 적정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는 재개발과 재건축,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대책과 맞물려 공급과잉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10 대책, 광주 아파트값 낮출까

수도권 정책 지역에 동일 적용
광주 부동산 시장 일단 관망세
노후 아파트 중심 하락할 듯

7·10 부동산 대책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실수요자가 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다주택자들이 증세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투자수단보다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눈치를 보며 당분간 관망하다가 세금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일부 가치가 낮은 물건부터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렸다. 향후 광주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광주 등 지방에서는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선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아파트 수요에 맞춰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 높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기간 표준별로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 역시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종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종과세율을 세분화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줄이기 위해 보유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2년 미만은 60%까지 오른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까지 유예해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광주의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겠지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서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시 부담이 되는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고, 동시에 신규 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광주지역 일반가구(57만8559가구) 가운데 1주택은 24만8931가구(43.0%), 2주택은 6만3130가구(10.9%), 3주택은 1만4272가구(2.5%), 4주택은 4028가구(0.7%), 5주택 이상은 3492가구(0.6%)였다. 또 무주택은 24만4706가구(42.3%)에 달했다. 개인 소유 주택 44만1585호 가운데 타 시도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5만7026호(12.9%)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 세금 부과 이들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용도 이외에 보유한 8만4922가구, 특히 외지인의 5만7026가구를 매도할 지가 우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주택을 매입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는 이 부분이 제외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통해 일단 과도한 집중을 막고,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통한 부의 증식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박기용 기자 chadol@

오피스텔·사찰·교회·요양원·학원·스포츠클럽…

광주, 코로나19 안심할 곳 없다

일일 확진자 전국 최다 발생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될수도

광주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난달 27일 이후 2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금양 오피스텔(방문판매)에서 시작된 전파고리가 사찰, 요양원,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 스포츠 동호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한때 '코로나19 청정지'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광주 지역은 이제 일일 확진자가 가장 많은 위험지역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위중한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을 사실상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동안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회에서 예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남 대학교 스포츠 센터를 이용한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5명에 이어 이날 추가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의 총 누적

확진자는 162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후 16일간 총 1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에서 현재까지 방문판매와 관련해 확진자가 나온 시설·모임도 12곳으로 늘었다. 이날은 오후 6시 현재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으며, 총 1585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 118명의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3명이 호흡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으로 분류됐다. 광주시는 감염경로가 금양오피스텔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로까지 확산함에 따라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지역감염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추가 확진자와 이동경로 및 접촉자 파악은 역학조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민 각자가 방역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확진자들은 역학조사 진술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추가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연이은 협조 요청에 지역 종교계를 중심으로 응답하고 있다. 광주에 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의 총 누적

예배를 진행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역 1492곳 교회 가운데 966곳(62%)이 현장 예배를 했다. 566곳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예배를 전면 취소했다. 현장 예배를 한 교회는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50인 이상 실내행사는 모두 금지된 가운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 중 이를 어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 교회 모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 두기,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 5일만 해도 72.6%(1084곳)가 현장 예배를 하고, 이 가운데 55곳은 50인 이상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광주시는 다만 배드민턴 동호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생활체육 관련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 경기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에어로빅, 맨스 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 집단운동을 금지하며, 지역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 체육시설(공공·민간 모두 포함)의 운영도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영면 … 온라인 영결식

서울·광주 등서 추모 물결
장례위 "추측성 보도 자제물"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3·4면> 박 시장 장례위원회의 박흥근 공동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례위는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영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사·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장례위는 영결식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다. 이후에는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만큼 고소인을

향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에도 모드'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록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니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니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